



## ‘순수주의’ 라는, 시대의 공색한 변명

이 그림은 내가 서울과 전주, 광주 등지로 소위 보따리 장사(대학강사)를 하던 시절, 길에서 얻은 착상으로 작업한 것이다. 뭐 착상이랄 것도 없는, 너무도 흔하다 흔한 풍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뻔한 우리 시대의 풍경이 그림이 되고 보니 전혀 다른 문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것이 그림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시대를 꿰뚫어보는 시선이 신선하다’ 라는 평도 있었다. 당시 이 그림에 대한 미술계의 평은 양분되어 팽팽하게 맞섰고, 그러다보니 화제를 모으기까지 했다.

부정적인 견해는 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었다. 이 그림은 국전이나 여타의 공모전 또는 미술관이나 화랑, 그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들이 하고 있는 ‘순수’ 한, ‘숭고’ 한 미술 즉, 예술에 대한 모독으로 비취졌기 때문이다.

당시는 ‘노장사상’ 이다 ‘선비사상’ 이다 하면서 어떤 색과 형태도 허용되지 않는 흑백 모노크롬 회

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었다. 그들은 미술의 비정치성을 내세우며 ‘순수’ 한 예술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도 미술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자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미술의 독립이란 사실 권력에 안주하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미술 밖의 문제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철저하게 부도덕한 권력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자신들은 딱이나 먹겠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의 상황은 처참하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죽는 사람, 끌려가 반병신이 되도록 맞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 등등 공포와 전율의 시절이었다. 이 시절, 한국예술인총연합회는 허구헌날 박정희의 군부의 영구집권 지지 성명을 내는데 앞장섰고, 그 대가로 정권은 그들의 배를 불러주었다. 잡초가 눅눅 바람 앞에 납작 엎드려 제 살 구멍만 파던 그 거룩한 예술인들이 주장하던 그 미학이 바로 순수주의였던 것이다.

그러한 억눌린 상황에서 이런 그림이 나타났으니 사실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술의 본연, 즉 예술의 본질적인 물음에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도대체 그림이 무엇인지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여 이젠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이 미술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목마른 일반대중이었을 것이다. 당시 일반인들은 미술은 보아도 잘 모르는 것, 미술가들끼리 가지고 노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무관한 것으로 한켠으로 제쳐 놓고 있었다.

대부분 미술인들은 미술인들대로 무지몽매한 일반대중들에게 알아들을 무엇을 하느니 차라리 고독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며 음풍농월을 즐기고 있었다. 그 결과, 이래저래 미술은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다.

대학원 논문을 쓰며 나는 미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 삶에 있어 미술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왜 그려야 하는가' 그러한 근원적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바로 '미술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대중이어야 하며,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즉, 예술적으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따분한 일상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새롭고 재미있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 특히 부모님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 부모와 이웃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나는 나를 내몰았다. 그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그림 공부를 하였고,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내가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회적 배반이요,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

는 그림공부를 내가 지금까지 해 온 모두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양미술도 오늘이 있기까지 굴절이 많았으며,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미술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겠다는 세계인식을 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였던 나라, 그 전에는 중국의 지배권에서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뻐던 나라, 해방 이후는 미군 주둔과 함께 민족사적 비극과 분단으로 신음하는 나라, 여기에 지나간 군부독재를 겪은 나라. 이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미술, 예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있더라도 나는 그런 그림은, 그런 예술가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그려야 할까. 이 과정에 나온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

시골농촌 구석까지 자본주의는 밀려온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벌거벗은 반라의 여인에게는 허리가 끊어져라 논밭에서 코가 땅에 닿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농부들이 눈에 보일 리가 없다. 그저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이다. 전국 산야를 뒤덮는 광고 - 자본주의의 상징을 볼 때마다 당시 나는 치를 떨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화의 이 자연에 서양식으로 그려진 간판이 쳐들어 오고 있었다. 나는 상업주의의 물인간성과 그 폭력성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미술 일반을 오해하고 있다. 꽃이나 풍경, 예쁜 여자 등 예쁜 것을 더 예쁘게 그리는 것이 미술이며, 예쁘지 않은 것도 덧칠하여 예쁘게 둔갑시키는 것이 미술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임옥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74 동대학원 졸업  
1979-81 광주교육대학 교수  
1981-92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986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1993-94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저서 /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